

보도시점 2025. 2. 28.(금) 배포 시 배포 2025. 2. 28.(금)

경지면적은 감소 추세지만, 경지면적 감소 폭은 둔화 추세

- 통계청 「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」에 대한 분석
- 식량안보 및 적정 수준의 농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2월 27일(목)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」와 관련, 경지면적은 감소 추세이지만 경지면적 감소 폭은 둔화 추세이며, 식량안보 및 적정 수준의 농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「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」에 따르면, 2024년 경지면적은 150만4천6백ha로 전년(151만2천1백ha) 대비 7천5백ha(0.5%) 감소하였다. 그러나 최근 5년간의 평균 경지 감소 면적인 1만5천ha와 비교하면, 감소 폭은 크게 줄어들었으며, 지목별로 살펴보면 2020년 대비 논 면적은 6만3천ha 감소하였지만, 밭 면적은 오히려 3천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농지전용허가의 현황에 따르면 경지면적 감소는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(도로, 철도 등)과 주거시설(공공주택 등) 설치가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으며, 산업단지 등 공업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, 공업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면적이 전체 농지전용허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이후 연 평균 10%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아울러 2024년 경지 실 감소면적은 8천9백ha로 지난해(1만8천1백ha) 대비 50%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최근 5년 평균 경지 실 감소면적은 1만6천2백ha이고, 경지면적의 모든 감소 요인(건물건축, 공공시설, 유흥지 등)에서 실 감소면적이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, 경지면적 감소 추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농식품부 윤원섭 농업정책관은 “계속해서 식량안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농업정책관실 농지과	책임자	과 장	김형식 (044-201-1731)
		담당자	사무관	신승현 (044-201-1737)

